

지역 매아리

고창군,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지원용주차구역 일제단속

고창군은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주차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겪고 그 위반 신고건수의 증가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비합당한 주차문화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전국 일제 단속기간인 12월과 13일 이틀간은 민원 및 주차위반 민발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4일부터는 판매시설과 공공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에 나선다.

단속 및 점검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주차불가능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부착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과 단속을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재향군인회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정읍시재향군인회(회장 윤재동)는 제 66주년 재향군인의 날에 호국의식고취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한민국 최고영예인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정읍시재향군인회는 1952년 4월 5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읍군연합회로 발족, 1995년 1월 23일 행정명령에 의거 정읍군회와 정주시회가 통·폐합되어 정읍시재향군인회로 개칭되었다. 정읍시재향군인회는 현재 회원 2만2천명이 가입되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공헌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정책 지원을 비롯한 현안 안보대응활동, 지역시민 안보교육, 안보현장 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주관 및 불우 6·25참전용사 생계보조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재향군인회로서 정읍권변정화 및 환경보호활동과 기초 거리지서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읍시재향군인회 윤재동 회장은 "튼튼한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보단체 재향군인회 재건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서리내려 더욱 진한 겨울국화 향기’

고창국화축제 11일까지... 마지막 날엔 식용국화 · 화단국화 분양도

서리를 맞고 꽃 피우는 동국(冬菊)의 향기가 고창군 고인돌공원 일원에 날이 갈수록 진해지고 있다.

고인돌왕국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는 고창고인돌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규모와 밀집도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특히 300톤급 고인돌은 동양 최대이며, 고인돌은 제례의식뿐만 아니라 천체관측, 마을의 경계를 나타내며 특히 권력의 크기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고창지역이 청동기시대부터 삼한시대까지 한반도 중심지였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물이다.

‘고창국화축제’는 특히 생물권보전지역 랍사르 운곡습지를 연계 아름다운 자연생태환경을 만끽할 수 있으며, 지난 달 28일 개막 이후 1일 평균 1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개최되는 축제장에서는 고창의 정정쌀을 이용한 수제 쌀떡주와 떡갈리 시음회, 황토배추를 이용한 감장체얼 및 절임배추 관측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고창의 특산품을 이용한 복분자, 딸토포떡과 고구마와 보리빵 등의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더불어 오색국화밭에서는 흥과 멋이 살아있는 고창사람들의 관소리, 민요, 난타, 농악 등의 무



서리를 맞고 꽃 피우는 동국(冬菊)의 향기가 고창군 고인돌공원 일원에 날이 갈수록 진해지고 있다.

대공연도 이어져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고창 국화축제장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볼거리 중 하나는 화분국화를 전시하며 화분 돌래에 경관용으로 파종한 보리이다.

‘보리 도(牟)’가 들어 있는 고창의 옛 이름 모량부리현(牟良夫里縣)이나 모양현(牟陽縣)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창은 보리의 고장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싹 틔운 보리와 국화, 그리고 고인돌이 한 데 어우러져 고창의 의미를 더욱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입동을 맞아 더욱 진한 색과 향, 보리의 강인한 생명력, 선사

시대의 고대문화까지 한 곳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고창군을 방문해야 할 이유이다.

군은 특히 축제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식용국화밭의 꽃을 무료로 따갈 수 있도록 개방한다.

군 관계자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와 문화가 접목된 유망무이한 ‘고창국화축제’는 단순한 꽃 축제를 넘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며 “민과 관이 힘을 모아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된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국화축제’에 꼭 들러보시고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새만금 사업지역 주변 축사 건축허가불허처분 소송 ‘승소’

“수질환경보전 필요한 지역”

부안군은 지난 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1행정부에서 진행된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축사 건축허가불허 처분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안군은 지난 2016년 7월 29일 부안군 가족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해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전 지역을 축사 전면제한지역으로 변경하고 창북리·계화리 축사 15건(돈사 4건, 계사 10건, 우사 1건)에 대해 새로운 조례를 적

용해 불허가 처분한 바 있다. 이 중 원고들은 9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부안군은 새만금지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공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 항소했으며 2년 여의 길고 긴 싸움 끝에 2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 당시 “개정된 조례는 가축분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및 계화면 창북리·계화리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이 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새만금 사업지역의 인근이라는 점을 들어 가축분뇨법 규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 필요한 지역’으로 봄이 상당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부안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4월 30일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동진면 안성리·계화면 전 지역을 축사 전면제한지역으로 개정해 새만금호 주변으로 물려드는 축사 신축을 차단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보건소,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실시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 이하 보건소)는 8일 신대인체육관 주차장에서 약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동 대응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정읍시청 안전총괄과를 비롯하여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제 8098부대 4대대, 정읍아산병원 등 6개 초동대응기관이 참여했다.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물테러는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의 훈련은 시민통합한마음 체

육대회 도중 한 남성에게 수상한 백색가루를 전달 받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신고접수를 시작으로 상황전파, 초동 대응기관 출동, 현장통제, 현장 검사 및 환경검체 채취, 환경제독과 노출자 제독 순으로 이어진 훈련에 참여한 각 기관은 맡은 임무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을 방불케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각 기관들이 세부역할을 숙지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생물테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백색가루를 발견하면 접촉을 피하고 112, 119 또는 보건소로 신고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가 다양한 출산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시보건소, 임산부 위한 출산준비교실 ‘호응’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 이하 보건소)에서는 분만을 앞둔 임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출산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산준비교실은 해피맘 건강맘 임산부 건강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임산부 공예교실로써 2월부터 11월까지 총 31회 추진된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보건교육실에서 전문 강사를 통해 임신, 출산, 모유수유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올바른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었다.

해피맘 건강맘 임산부 건강교실운영은 분만대처 요령, 자연출산, 산후 건강관리 등의 교육을 통해 임부들의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임산부의 산전·후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임산부 공예교실은 배냇저고리 만들기, 베개 만들기, 손·발싸개 만들기 등을 실시하여 임산부들 간의 정서 교감과 교류를 통해 임신

부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었다. 오는 21에는 모유수유 클리닉 강좌를 통해 성공적인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지식제공과 개인별 유방 진단을 통한 1:1 맞춤형 마사지관리법 및 산후 모유수유 문제 대처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준비교실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모성애에 대한 자신감을 주어 임산부 및 출생아 등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사회적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부 등록자에게 영양제제공, 임신 전 예비맘 혈액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교체분유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